

# 환율 하락! 재료값은 왜 안내리나

## “기다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의견 분분해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이 올 1월 들어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료값도 더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 기다려야 한다”, “이젠 내려야 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가? 내려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 어디까지 내려야 하는가? 이런 물음의 답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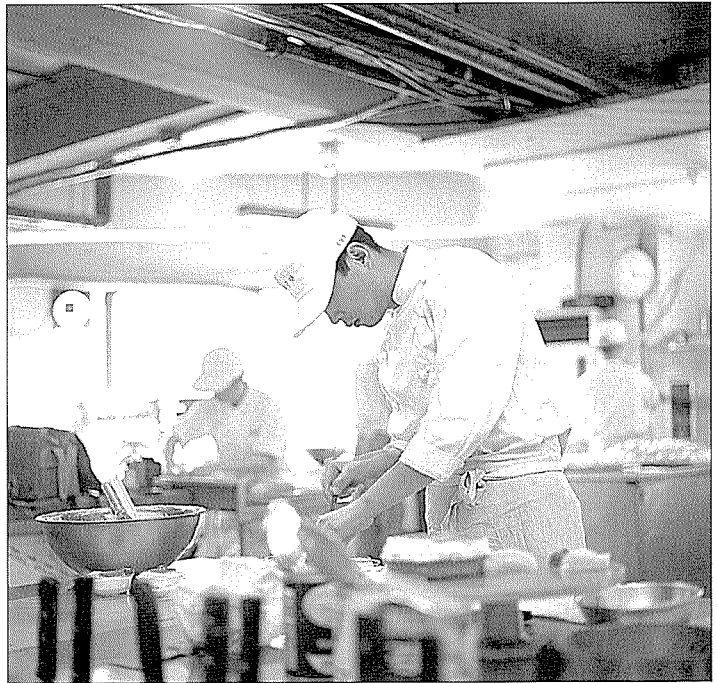
“재료값이 크게 오른 것은 환율 급등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97년에 오르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료값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저런 핑계로 가격을 안내리거나 늦게 내린다면 업체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베이커리 업계의 불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재료값에 대한 불만이다. 위의 한 제과인의 말처럼 재료값 상승의 원인이었다던 환율이 최근 크게 떨어졌고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재료값을 내릴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몇차례 가격이 내렸다. 그러나 환율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에 비교적 재빠른 움직임을 보인 업체들이 환율 하락 때에는 재료값 인하에 늦장을 부리며 이속을 챙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현재의 환율을 고려하면 지금의 재료값이 거의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환율에 비해 재료값이 높다고 인정하는 업체의 경우도 올 1월 들어 환율이 하락하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환율 하락 방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변화의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추이를 보며 앞으로 계속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재료값을 소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의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각 업체의 수많은 품목의 개별적인 수입 시기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데다 업체들의 대금 결제 시기를 알 수 없어 환차익과 환차손에 따라 결정되는 적절한 가격 책정을 밝히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들의 가격 책정 과정과 환율 변동에 따른 재료값 등락 추이를 살피으로써 가격 변동 폭이 적절했는지, 또 현재의 가격이 적당한지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 환율 1,160원대로 하락 가격 인하 요인 발생

일반적으로 수입 재료 또는 원료의 수입은 해당 업체가 물품을 수입한 후 정해진 시기에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입 시기와 대금 결제 시기의 환율에 따라 결제액이 많고 적어지는 환차(換差)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환율 변동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환차가 적기 때문에 업체들은 보통 제품 가격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다만 수확량에 따른 원자재 가격 등락폭이나 환율의 변동이 심할 경우 가격 상승이나 인하가 발생하게 된다.

환차에 따른 가격의 조정은 물품 수입 당시의 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1차로 수입한 해당 물품의 재고가 얼마 남지 않으면 다시 필요한 양만큼 2차로 수입을 하게 되므로 어느 시기에는 수입 가격이 다른 동일 물품이 시장에서 같이 판매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같은

제품의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으므로 1차분과 2차분의 가격을 절충해 가격을 책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97년 말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재료값의 인상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실제로 97년 10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960원대를 기록하던 환율은 11월 들어 1,160원대에 올라섰고 12월초에는 1,200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12월 중순 들어서는 날만 새면 100원씩 오르는 급등세를 보여 12월 하순에는 예년의 2배 수준인 1,960원대까지 치솟았고 98년 1~2월 들어 약간 하락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모든 재료는 값이 급등했다. 97년 12월 들어 대부분의 제과 재료의 값이 올랐으며 일부 재료는 환율이 1,700원대에 들어선 후 환율 연동 방식에 따라 매일 판매가가 달라질 정도였다. 이어 12월 중순 경에는 원재료인 밀가루, 설탕, 마가린 가격이 인상됐고 1월 들어 추가 인상되는 등 2월까지 주재료는 총 60%, 수입 재료는 97년 12월과 98년 1월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40~70% 가격이 인상됐다.

물론 97년 12월과 98년초 가격 인상 당시 업체들은 당시의 환율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환율 인상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했을 때 인상폭이 너무 큰데다 수입 재료의 경우 극심한 판매 부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환차손 피해를 겪어야 했다. 특히 밀가루, 설탕, 유지 등 물량이 많은 원재료 업체들은 수십억원의 환차손을 입어 막대한 경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98년 2월 이후 환율이 하락하자 가격을 내린다는 명목 아래 실시된 재료값 인하에서 업체들이 가격 인하의 폭과 시기를 낮게 하거나 늦춤으로써 그동안의 환차손을 만회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료 수입 물량이 많고 수입이 빈번해 환차손이 컸던 기초 재료 생산 업체의 경우 이런 특성 때문에 반대로 환차손 만회 역시 빨랐으며 수입 재료 업체도 현재 환차손을 만회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내리는 것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업체들이 수입이나 대금 결제시 적용하는 '전신환 매도율' 환율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속 내림세를 기록했고 98년 1월 이전에 100원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던 것과는 달리 2월부터는 거의 안정세를

나타냈다. <표 1>의 환율표는 해당 월 가운데 최고치를 제시한 것으로 월 평균 환율은 이보다 낮다. 따라서 이 전신환 환율 변동 추이에 따른 각 업체별 가격 인하 추이와 가격 인하율을 살펴 보면 가격 인하가 적절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기초 재료의 경우 업체들은 밀가루는 3월에 강력분 5.8%, 박력분 7%로 내린 뒤 5월에 다시 11%정도 가격을 인하했다. 설탕은 4월에 5%, 7월에 10.5%, 12월에 7%를 내렸다. 마가린은 30% 정도 가격이 인상된 후 재료상의 과당 경쟁으로 가격이 내린 탓에 업체들도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기초 재료 업체와 달리 업체마다 가격 인하 시점과 인하율이 틀려 <표 1>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입 업체들은 환율 1,600원대와 1,400원대, 1,300원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가격 정책을 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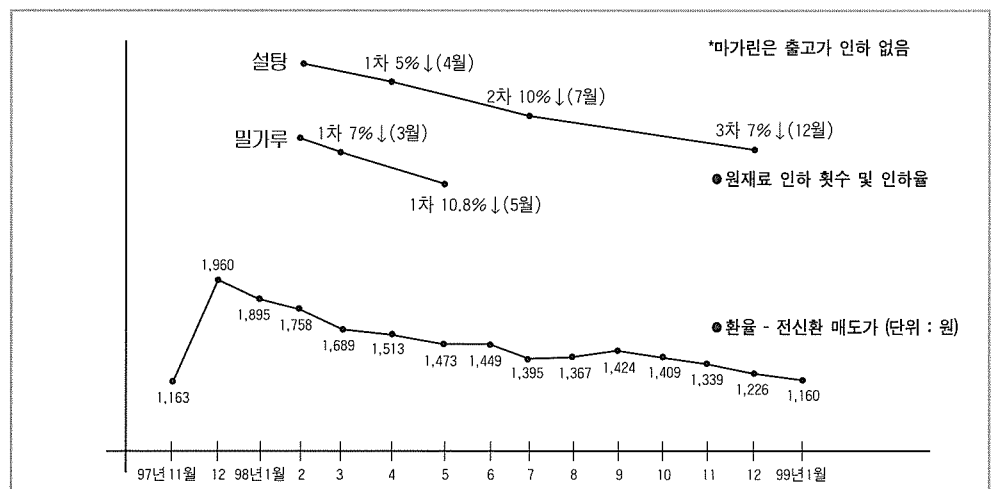
### 현재 환율 97년 11월 수준, 재료값 조정 필요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격 인하율이 환율 하락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가루 가격을 내린 3월과 5월까지의 예만 해도 재료 가격이 최고 수준이었던 98년 1월에 비해 강력분은 15.6% 내렸으나 같은 기간의 환율 하락은 22.2%로 차이가 난다. 다른 품목의 경우도 이처럼 환율 하락과 가격 하락폭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가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료상을 통한 시장 소비자 가격은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가격 인하율과 환율 하락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로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때 환율 상승률에 못 미치는 인상을 했고 환차손과 금리 비용 부담 등 업체가 입은 피해를 다 만회하지 못해 가격을 내리는 과정에서 작은 폭의 인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업체들이 1년여를 지나는 동안 환율 상승으로 입은 이익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런 근거는 주요 재료의 가격 인상 및 인하 폭을 보면 더

<표 1> 환율 변동 및 주재료 인하 횟수, 인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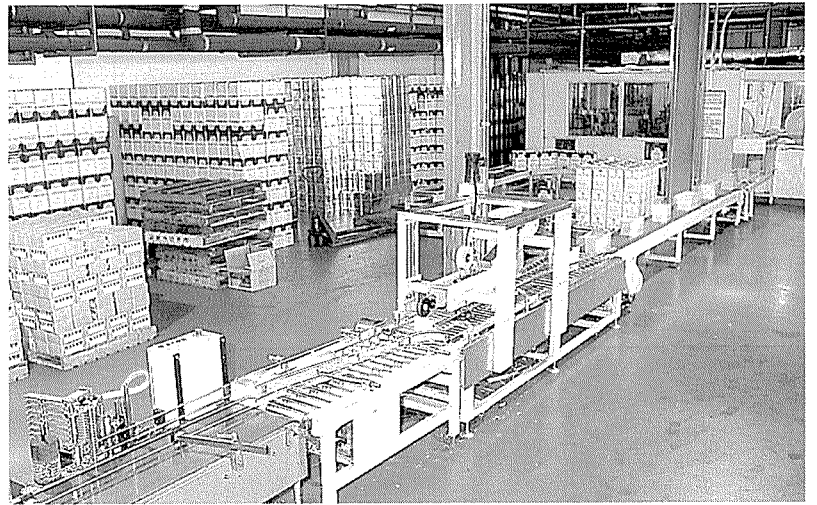


쉽게 파악된다. 표 2에서 나타나듯 가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98년 2월까지의 '인상률'이 99년 1월 현재의 가격 '인하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많이 올렸으나 가격 인하는 적게 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적게 하고 횡수도 3~4차례에 걸쳐 1년 동안 이익 손실을 만회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동안 업체들은 환율 하락에 따라 몇 차례 가격을 내리긴 했다. 그러나 소비자인 베이커리 업계에서 더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할 때 업체들은 아직 환차손을 만회하지 못했다거나 지금의 환율에 비추어 당시의 재료값이 적정한 가격임을 내세워 왔다.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은 환율 1,600원대, 1,400원대, 1,200원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소비자는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환율은 98년 1월 이후 내림세를 보여 99년 1월 현재의 환율은 97년 11월의 환율과 거의 비슷한 1,16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의 재료값을 가격이 오르기 전의 상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2>의 '97년 10월비 98년 1월 현재의 가격 비교율'에서 나타나듯 현재의 재료 소비자가는 환율이 비슷했던 97년 10~11월 경보다 밀가루 18%, 설탕 28%, 마가린 14%, 커버추어 20%, 휘핑크림 29%가 비싸며 다른 재료들 역시 비싼 수준이다.

따라서 <표 2>의 결과는 이제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당위



성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일부 수입 업체는 이미 지난 1월에 재료값을 내렸고 다른 업체들도 곧 가격 인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가격 인하 수준 및 시기이다. 베이커리 종사자들은 앞으로도 환율이 1,16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가격이 높은 품목들은 <표 2>에서 나타나듯 97년 11월 당시의 수준으로까지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이다.

또한 시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정부가 환율하락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환율하락 저지는 IMF의 협약을 거쳐야 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세이고 대부분의 업체가 시인하는 바대로 환차손이 만회되었는데도 가격 인하를 늦추는 것은 업체들이 이익을 조금이나마 더 챙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글/박종선>

<표 2> 주요 원부재료 가격 변동

품목	97년 11월	98년 2월	인상률	99년 1월	98년 2월비 99년 1월 현재 인하율	97년 11월비 99년 1월 현재 가격 비교율
강력분	10,500원	16,500원	57.1%	12,400원	24.8%	+18.0%
박력분	10,200원	15,500원	51.9%	11,500원	25.8%	+12.7%
설탕	10,900원	20,000원	83.4%	14,000원	30.0%	+28.4%
마가린	14,000원	18,000원	28.5%	16,000원	11.1%	+14.2%
대두유	20,000원	36,000원	80.0%	25,000원	30.5%	+25.0%
커버추어	15,000원	29,000원	93.3%	18,000원	37.9%	+20.0%
개량제	2,500원	3,000원	20.0%	3,000원	0%	+20.0%
휘핑크림	2,400원	3,100원	29.1%	3,200원	-0.3%	+33.3%
생이스트	800원	800원	0%	800원	0%	0%
황도	1,800원	2,500원	38.8%	2,400원	4%	+33.3%
체리베리	2,500원	5,000원	100%	3,500원	42.8%	+40.0%

\* '97년 11월'은 안정세일 때의 가격이며, '98년 2월'은 최고수준 일 때의 가격임.